



순창군이 4년 연속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은 유등면 버들지구 전경.

4년 연속 새뜰마을 선정 쾌거

순창군, 올해 유등면 버들지구 선정... 3년간 사업 추진

순창군이 4년 연속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19년도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군이 응모한 유등면 버들지구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80여개 마을이 응모해 1차 '도 평가'와 2차 '균형위' 서면·대면평가를 거쳐 최

종 선정된 것. 선정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학회, 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유등면 버들지구는 전체 가구수 110호 중 공·폐가 25호, 재래식 화장실 16호, 30년이상 주택 86호, 슬레이트주택 44호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다. 군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차적 사업추진 계획으로 추정사업비

23억4600만원을 신청했다. 국비 15억원과 도비 1억 9300만원, 군비 4억 5500만원, 자부담금 1억9800만원을 예비사업계획서에 반영했다. 주택정비, 생활·위생·안전,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사업이다. 군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수립과 세부설계 용역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전국시니어춘향 선발대회 내달 3일 개최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5월 3일 남원노인복지관과 전민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제4회 전국 시니어춘향 선발대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노년기를 개성적인 자아실현의 기회로 삼고, 노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참여 욕구를 적극 유도해 신노년문화를 주도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전국 시니어춘향선발대회를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시니어춘향선발대회.

행사는 오유경 KBS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오후 1시 시립극악단의 식전공연을 축하공연, 고별식,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며, 심사기준은 만60세 이상 여성 어르신 중 (주름이 아름다운 분,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시는 분, 삶의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분, 신노년 문화를 이끄는 분)자를 선발요건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등(대상) 250만원, 2등(은상) 100만원, 3등(은상) 70만원, 4등(은상) 50만원, 특별상 각각 50만원 등의 상금과 분선참가자 전원에게도 참가상이 지급된다. 2018년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여주시 심상량(73)씨는 여주노인복지관에

서 라인댄스 동아리를 결성했다. 매월 2~3회 배우자와 함께 요양원 봉사활동 및 지역축제에 무료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친환경농업 확산 유기농자재 정기 공급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는 겨울철에 유기농자재 생산 및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공급을 재개했다. 이번에 공급을 재개한 유기농자재는 GCM(젤라틴키친분해미생물)과

BM(박테리아미네랄) 활성수로 올해도 연중 800여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GCM은 살균·살충 및 토양의 선충 피해를 감소시킨다. 생리활성물질과 식물성자 호르몬을 공급해 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을 준

다고 알려져 있다. 농가들이 매우 선호하는 유기농자재 중 하나다. 설태송 소장은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자재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융복합형 문화장터 '꽃담장'을 남원에춘 문화마당 상설추진한다

남원 문화장터 '꽃담장' 새 단장

남원시는 지난해 추진하며 호평을 받은 융복합형 문화장터 '꽃담장'을 4월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원에춘 문화마당 일원에서 상설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꽃담장'은 총 100여명의 판매자가 신청한 가운데 친환경을 기치로 4개 분야 14개 문화행사가 일정에 따라 축제 형태로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부터 상설로 추진되는 '꽃담장' 행사가 시가지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한루 600년으로 지난해와 달리 '꽃담장' 관광열차 포토존 및 시범운영, 체험형 건강강좌 등을 새롭게 도입해 선보일 예

정이다. 지난해 개소하면서 관한루원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관광 거점지대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남원에춘 '꽃담장'은, 지난해 10월 문화관광장터로 출발해 지역문화 작가들이 참여해 수공예품의 열린 프리마켓과 함께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가는 나눔장터 베품시장, 지역농부와 암마들이 준비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공예품 등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장터를 만들기 위해 그릇과 컵을 대여하는 등 친환경 생태문화장터를 지향해 전통과 청정도시 남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마켓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활발

임실군은 운암면 운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1일 밝혔다. 운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하수도시설 구현을 위해 2015년부터 설계공역을 시작하여 국비 등 총 사업비 2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공정률 50%로 오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운암면 운암마을 일원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7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2.9km를 설치하여 62가구의 배수설비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가정 내 생활하수

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아 미생물의 자정작용 원리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침전·분리한 후 깨끗한 물만 방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끝나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인근에 있는 옥정호와 지방하천, 소하천의 수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미반영 지역은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가정 내 생활하수

지역 매아리

남원시 관한루 600년

봄 날들이 흥보

남원시가 관한루 600년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600만명 목표로 다부진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성과 이벤트를 가미한 특별한 장소로서의 관한루를 부각하고 관광운영 목표에 맞춰 4월부터 본격적인 상설이벤트 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8월을 600년 기념 주간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기념축하공연과 다양한 행사를 할 예정이며,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한국대표문화축제인 제89회 춘향제가 그 어느 해보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로 관한루 건립 600주년을 축하하듯 어느 때보다 포근한 봄 날씨에 하얀 매화꽃, 노란 산수유꽃, 연분홍 살구꽃이 피어오르고, 수줍은 듯 살며시 솟아오르는 할미꽃 봉우리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백련이 봄을 재촉하고 있다.

관한루원은 하절기(4월~10월)에 무료 야간개장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600년의 역사와 긍지를 지니고 있는 관한루원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드벌룬, 관한루 600년 리플릿, 비행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4월 지역사랑

화합의 날 행사 개최

남원시 공무원들이 꽃피는 4월을 기해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행복지수 꽃 피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시청강당에서 열린 4월 남원사랑 화합의 날 인사말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은 "행정의 직접 수요자인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많다"며 "4월부터 운행하는 행복버스와 행복콜택시, 남원사랑 상품권, 미세먼지 대책 등 내가 맡은 업무가 아니라더라도 시민들의 물음에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원사랑 화합의 날 행사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18년 동안 남원시 이통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시장발전 에 헌신하고 있다.

우광호씨를 비롯한 시민 16명과, 국가 암관리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보건소와 공무원 15명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